

구체적·실질적 核중재...대북 특사카드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추진

“지금 이 회담 추진 최적기”
트럼프 美대통령 스물둘 여자
北 김정은 위원장 설득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4·11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대화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북미 양국 사이에서 남북대화를 토대로 다시금 핵(核)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 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

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자신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는 의전·보도·경호 등에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배제하고 지난해 5·26 정상회담처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빅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했던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지난 세 차

례의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하는 ‘가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협상카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이 남북 간 핵(核)대화에 선뜻 응할지 미지수인데, 남북 간 채널이 가동되더라도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원칙에 입각한 영변 핵시설 폐기나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연속적인 ‘굿 이너프 딜’

(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제안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빅딜’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스물 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한 측과 물밑 조율에 나설 대북특사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북한과의 다각도 물밑 접촉을 통해 논의를 숙성시킨 후 특사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16~23일) 기간 전격적으로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과 함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사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조속 개최”... 한국당 “보여주기”

남북회담 추진 여야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급적 협력 필요성을 거론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 안 된 회담’ ‘보여주기식 회담’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오만을 불러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시정연설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의지와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재자를 자처하다 미국으로부터는 2분 정상회담으로 모욕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막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보여주기식 대화와 회담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북핵문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준비 안 된 대화는 성사도 어렵거나 한미관계 악화나 북한의 오만만 불러올 수 있다”며 “국내정치용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려 한다면 남남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孫 “추석까지 당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

바른미래 최고위 회의...손학규 대표 사퇴론 정면돌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며 사실상 정치적 배수진을 쳤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것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는 등 긴급히 당무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퇴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때까지 제3차대 그림이 그려지고, 이를 위한 바른미래당의 모습과 역할이 구체화할 텐데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제가 자리보전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손학규에 대한 모욕”이라며 “당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이 공중분해 되는 상황을 우려할 뿐”이라고 당 일각의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 정치를 추구하는 인재들이 바른미래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병국 의원에게 혁신위원회 제2차당위원회 건 말길 것”이라며 “정병국 혁신위는 공천 기준 등이나 정하려는 게 아니라 당체성과 노선을 제대로 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바른미래당계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사무총장, 김수민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영찬 전 靑 수석 총선 출마 선언

민중 입당 성남 중원 출마 의사... 1기 참모진 행보 주목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경기 도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수석의 입당과 출마 선언에 따라 청와대를 떠난 1기 참모들의 총선 행보도 주목된다. 우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의 경우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과거 지구역였던 서울 중·성동을 옮겨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종로가 유력하다. 종로의 현역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지만 17대 국회 이후 국회 의장 출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기 때문이다. 다른 ‘1기 참모’들은 주로 리턴 매치를 준비 중이다. 한병도 전 수석은 20대 총선 때 낙선한 전북 익산에서, 송인배 전 비서관은 17대 총선부터 20대 때까지 도전했던 경남 양산에서 출마가 유력하다. 백윤우 전 비서관은 재선을 한 경기 시흥에서 재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한 진영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용산 출마가 거론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이미션 대치’... 표류하는 4월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사일정 합의 불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으나 또 다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선 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이 거듭 드러났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처리하고 민생 경제 입법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나 자신도 판사 출신이지만 (이 후보자 논란은)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라고 야당이 말하면 한 번쯤은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해보는 모습을 가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적격 여론보다 부적격 여론이 배가 많았다”며 “정부가 이런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임시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탄

1566-9988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 point 2 4 6 3 7 1 2 8 0

J3 6 point 4 6 2 8 1 0 9 7 3

J2 5 point 0 7 0 2 1 4 0 0 2

J1 4 point 0 0 1 7 9 0 0 2

J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제 8 회 전국 교역자 및 성도 세미나 (초교파)

일곱 우리가 담긴 작은 책

강사 :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 저자 조영래 박사(목회학, 문학, 철학) 직강
이 책을 읽는 사람만이 신천지를 이길 수 있다

- ▶일시: 2019년 4월 29일(월) ~ 4월 30일(화) 14:00~18:00
- ▶장소: 임동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1층 (광주 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 ▶문의 및 신청: 010-8535-2007, 010-8991-7487, 010-9114-6654 (선착순 마감)
- ▶참가비: 없음
- ▶블로그: blog.naver.com/osbooks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판매 중)

- 1권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 2권 이 땅의 주, 그는 누구인가?
- 3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들은 누구인가?
- 4권 네 생물, 그들은 누구인가?
- 5권 666, 그들은 누구인가? / 6권 작은책 / 별책 장안산(上)

출간 예정 : 7권 멜기세덱 후편

- 8권 이 땅의 전쟁은 이나라 이민족의 운명이다
- 9권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 10권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어떻게 다른가? / 별책 장안산(下)